

R-8. 하악 2급 이개부 병변에서 이종골 이식시 Fibrin adhesive(Tissu-col[®])과 Calcium sulfate barrier(CAPSET[®]) 사용에 따른 임상적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곽승호, 홍기석, 임성빈, 정진영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치근 이개부 결손의 효과적 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많은 술식과 재료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현재까지는 결손부에 골이식술을 병용하여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술자의 접근도나 술식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유도 재생술시 차폐막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임상에서는 흔히 발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급 이개부 병변을 가지는 하악 대구치 결손부에 이종골 이식재(BBP[®]) 이식 후 Fibrin adhesive로 고정하였을 때 그 치유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Fibrin adhesive 가 골 이식재의 초기고정과 골조직 재생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의 임상적 사용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재료

2급 치근 이개부 병변을 가지는 하악 대구치 26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Fibrin adhesive군에서는 이종골 이식재(BBP[®])를 치근 이개부 결손부에 이식한 후에 Fibrin adhesive (Tissucol[®])로 고정하였고, Calcium sulfate군에서는 이종골 이식재를 결손부에 이식한 후 Calcium sulfate barrier(CAPSET[®])를 적용하였다. 술 전과 술 후 3개월, 6개월에 치주낭 탐침깊이, 임상적 부착수준, 치은 퇴축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측정 결과는 Wilcoxon Signed Ranks Test와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두 군 모두에서 치주낭 탐침깊이, 부착 상실 양은 술 전에 비해 술 후 3개월, 6개월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p < 0.05$). 두 군 모두에서 치은퇴축 양은 술 전에 비해 술 후 3개월, 6개월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p < 0.05$). 시간경과에 따른 두 군 간에 변화량 비교시 술 후 3개월, 6개월에서 두 군 모두 치주낭 탐침깊이, 부착상실 양은 감소를, 치은 퇴축량은 증가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주낭 탐침깊이와 부착상실 양의 감소는 술 후 3개월에서 가장 많이 보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하악 2급 이개부 병변을 이중골과 Fibrin adhesive로 치료시 치주낭 탐침깊이, 부착상실, 치은 퇴축의 임상지수에 있어 Calcium sulfate barrier 사용시 보다 약간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차폐막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골이식의 성공을 도와주는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